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59장 시련과 믿음의 시금석

『산상설교』 하권 제59장, 인쇄 398~412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7:24~27

❓ 지금은 신앙이 괜찮아 보이는데, 정말 힘든 일이 터지고 죽음 앞에 서도 이 믿음이 버텨 줄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산상설교 끝의 두 집 비유가 자기기만을 경고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자기기만이란 참 신자가 아닌데 스스로 신자라고 믿는 상태다. 그는 먼저 순종 없이 감정만으로 신앙을 대신하는 위험을 짚는다. 이어서 7장 끝의 장면들(두 문, 두 나무, '주여 주여' 하는 자, 두 집)에 모두 심판이 흐른다고 보고, 거짓 신앙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한다. 비·창수·바람은 각각 인생의 시련, 세상, 사탄의 공격이며, 그 끝에 죽음과 최후 심판이 온다. 이 시험을 이긴 성경 인물과 순교자들의 공통점은 산상설교를 실천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기계적인 경건 습관을 버리라고 한다. 대신 날마다 산상설교에 비추어 자기를 점검하라고 권하며 설교를 맺는다.

📜 절별 정리

📜 1. 감정이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

로이드 존스는 신약성경이 경고에 얼마나 많은 지면을 쓰는지부터 지적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고를 마음에 새기는 데 더디다. 신약은 세 가지를 거듭 경고한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피상적인 신앙, 자기 활동을 의지하는 신앙, 감정을

사랑은 매우 실제적이다. 주님도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다. 그래서 막연한 좋은 기분만 있으면 된다는 유혹을 끊으려고 산상설교의 마지막 경고가 주어졌다고 그는 본다.

1. 신약은 경고를 반복하는데 우리는 더디 듣는다
2. 입술의 신앙, 활동 의지, 감정 의지가 모두 위험하다
3. 성경의 사랑은 기분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러난다
4. 막연한 기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자기기만의 길이다

> **요한복음 14:21**
>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기준
>
>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 **마태복음 7:21**
>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경고
>
>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 **고린도전서 13장**
>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 행실임을 보여 주는 장
>
>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

“순종을 기분이나 감정으로 대신하는 것만큼 큰 잘못은 없습니다.”

📜 2. 마지막 장면들에 흐르는 심판: 거짓 신앙은 무가치하다

주님은 왜 이렇게 특별한 그림들로 가르치셨을까? 로이드 존스는 이 장면들 모두에 심판의 뜻이 들어 있다고 답한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이어진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다. 모래 위의 집은 크게 무너진다. 그는 이 심판이 “비판하지 말라”로 시작하는 7장 전체의 주제라고 본다. 거짓 신앙은 잘못일 뿐 아니라 결국 아무 가치도 없다. 잠깐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진짜 시험은 견디지 못한다. 넓은 길은 안전해 보이고, 나쁜 나무도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며, 모래 위의 집도 완벽해 보인다. 햇빛이 비칠 때는 천막 한 장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폭풍이 오면 '미련한 자의 낙원'이 드러난다. 그 예로 그는 창고를 더 지으려던 어리석은 부자를 든다.

1. 넓은 문, 나쁜 나무, 두 집 모두 심판 장면이다
2. 심판은 7장 1절부터 흐르는 7장 전체의 주제다
3. 거짓 신앙은 결국 무(無)로 끝난다
4. 맑은 날엔 모래 위 집도 훌륭해 보인다
5. 가장 필요할 때 도움 안 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 **마태복음 7:13**
>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첫 심판 장면
>
>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 **마태복음 7:19**
>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
>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업적을 내세운 자들에게 “알지 못한다”는 선고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27

모래 위 집은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1

7장 전체가 심판을 주제로 함을 보이는 출발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누가복음 12:20

필요한 순간 쓸모없는 것을 쌓은 부자의 어리석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 3.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 비가 뜻하는 것

로이드 존스는 시험이 보편적이라고 강조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집에도, 어리석은 사람의 집에도 똑같이 비와 창수와 바람이 온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곤란이 사라지고 “그 후 행복하게 살았다”로 끝난다고 말하는 곳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그는 이 비유가 장차 올 심판 날만 가리킨다는 해석도 물리친다. 심판 날이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세상 생활에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세부를 지나치게 풀이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도 주님이 비·창수·바람을 일부러 구별하셨으니 각각의 뜻을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노년과 질병은 반드시 오고, 몇 달씩 한 방에 갇혀 지내는 일은 사람을 밑바닥부터 시험한다.

1. 신자에게도 비바람은 똑같이 온다
2. '행복하게 살았다'로 끝나는 신앙은 성경에 없다
3. 이 비유는 심판 날만이 아니라 지금 삶에도 적용된다
4. 비는 질병, 손실, 실망, 사별 같은 인생의 시련이다
5. 노년과 질병은 피할 수 없고 사람을 깊이 시험한다

📜 4. 창수, 바람, 그리고 죽음

창수는 성경이 말하는 '세상', 곧 하나님 없는 세속적 생활방식이다. 세상은 신자든 거짓 신자든 가리지 않고 집에 부딪친다.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소리 없이 스며들어 손해를 입힌다. 로이드 존스는 여기서 신자가 신앙을 버리고 싶어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한다. 세상의 힘이 너무 세서 기초가 흔들린다고 느끼는 때가 있다는 뜻이다. 그 예로 젊을 때 뜨겁던 사람이 중년이 되어 장래와 사회적 위치를 계산하며 주저하고 느슨해지는 모습을 든다. 바람은 사탄의 공격이라는 해석에 그는 동의한다. 사탄은 세상을 통해 유혹하기도 하고, 직접 의심과 더럽고 신성모독적인 생각으로 덤비기도 한다. 경건한 성도들도 이 공격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이 공격을 견디는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뿐이다. 마지막으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와서, 아는 모든 것을 남겨 두고 떠나는 순간에 사람의 기초를 가장 깊이 시험한다.

1. 창수는 하나님 없는 세속적 생활방식이다
2. 세상은 힘으로도, 조용히도 스며든다
3. 중년의 계산과 이완이 세상의 시험이 된다
4. 바람은 의심과 악한 생각으로 오는 사탄의 공격이다
5. 죽음은 모두에게 오는 가장 깊은 시험이다

> **요한일서 2:16**
> 세상의 요지를 넘어뜨리는 세 가지 특급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고린도후서 11:14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미혹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에베소서 6:11~17

사탄의 공격을 견딜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전신갑주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

📜 5. 반석 위에 선 사람은 어떻게 견디는가

로이드 존스는 복음 전도의 최고 임무를 사람들이 이런 사태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은사나 직업, 고상한 성품이 있어도 다가올 시험에 대비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는 청중에게 묻는다. 위기 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거기 계신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죽음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가? 이어서 참 신자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 준다. 늙은 시편 기자는 젊은이들에게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라고 증언한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이는 다급해하지 않는다. 이미 기초를 준비해 두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씨 뿌리는 비유의 거짓 신자는 뿌리가 없어 박해 앞에서 끝나고, 세상 염려와 재물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실제 증거도 있다. 사자 앞에서 찬양한

싸웠다”고 고백했다. 웃으며 화형대에 오른 이들, 언약교파 사람들, 청교도들도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외 없이 산상설교를 실천해 왔다는 것이다.

1. 복음 전도는 사람을 시험의 날에 대비시킨다
2. 위기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지가 시금석이다
3. 믿는 이는 다급해하지 않는다, 기초가 있기에
4. 거짓 신자는 뿌리가 없어 시련에 끝난다
5. 시련을 이긴 성도들은 모두 산상설교를 살았다

> **시편 37:37**
>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라는 노년의 증언
>
>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 **시편 37:25**
> 증언자가 오래 산 노인이라는 경험의 무게
>
>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 **시편 112:7**
>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않는다
>
>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 **이사야 28:16**
> 믿는 이는 다급하지 않다, 준비된 기초 때문
>
>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촛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뿌리 없고 세상 염려에 막힌 거짓 신앙의 결말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빌립보서 1:12~23

감옥과 배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한 바울

12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

고린도후서 4:17

환난을 영원한 영광에 비해 가볍게 본 시각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디모데후서 4:6~7

죽음을 앞두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끝맺음

6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 6. 마지막 심판의 날: 감출 수도, 다시 할 수도 없다

로이드 존스는 이생의 시험 너머에 '그 날', 곧 최후 심판이 확실히 온다고 말한다. 바울은 선교와 교회 세우는 방법을 두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다. 그날이 각 사람의 공적을 밝힐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달란트, 민족들의 심판 비유와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심판을 알린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이 심판은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든다. '주여 주여' 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 주님은 그동안 내내 그들이 자기 백성이 아님을 알고 계셨다. 아무것도 주님 눈에서 숨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심판은 최종적이어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가르침은 성경에 없다. 그래서 내 집이 반석 위에 있음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이 세상 최대의 질문이 된다.

1. 이생의 시험 너머에 최후 심판이 확실히 온다
2. 그날이 각 사람의 일과 공적을 밝힌다
3.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4. 심판은 마음 깊은 곳까지 드러낸다
5. 두 번째 기회는 없다, 그래서 지금 점검해야 한다

> **고린도전서 3:13**
> 그날이 각자의 공적을 밝힌다는 바울의 확신
>
>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 **고린도후서 5:10**
>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
>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 **마태복음 25장**
> 세 비유로 보여 주는 최후 심판의 모습
>
> [1]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 [2]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3]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가져갔더니 [5]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6]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

베드로전서 4:17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히브리서 4:13

만물이 그분 앞에 벌거벗은 듯 드러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12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 7. 기계적 신앙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라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 로이드 존스는 오해를 무릅쓰고, 기계적인 신앙생활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고 말한다. 그 예로 'Quiet time'을 그냥 'Q.T.'라는 약자로 부르는 당시 풍조를 든다. 아침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 좋다. 그러나 명령받았거나 습관이어서 하는 기계적 습관이 되면 영적 생활에 치명적이 된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읽는 것이다. 그러니 읽고 기도한 뒤에는 조용히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산상설교의 교훈에 비추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살려고 애쓰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우리는 남에게는 말을

사역에 열심이니 틀림없다”고 자신해서도 안 된다. 최고 소원이 주님을 알고,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지 정직하게 확인해야 한다. 세상이 유혹할 때는 언젠가 주님과 얼굴을 마주할 것을 기억하며 다른 것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

1. 기계적인 경건 습관이 가장 위험하다
2.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읽는다
3. 읽고 기도한 뒤 산상설교로 자기를 점검하라
4. 남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이 말하라
5. 사역의 분주함을 안전의 증거로 삼지 마라

> **마태복음 7:24**
> 듣고 행하는 자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
>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 **마태복음 7:22**
> 사역 활동이 안전의 증거가 아님을 보여 준다
>
>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기계적인 신앙생활보다 기독교인의 생활에 있어 더 위험한 것은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을 많이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충분히 하지를 않습니다.”

📖 용어

자기기만
참 신자가 아닌데도 스스로 신자라고 믿고 안심하는 상태다.

생래적 인간
거듭나지 않은 타고난 상태의 사람이다. 하나님 일을 자기 본성대로만 이해한다.

미련한 자의 낙원
위험이 닥칠 줄 모르고 지금의 편안함만 누리는 헛된 안정감이다.

세상(성경적 의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는 세속적 생활방식과 가치관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서 사탄의 공격을 견디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장이다.

최후 심판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까지 드러나 판정받는 일이다. 다시 기회가 없는 최종 판결이다.

기계적 신앙생활
성경 읽기와 기도를 의미 없이 습관과 의무로만 반복하는 신앙이다.

묵상
읽은 말씀을 조용히 되새기며 내 삶에 비추어 보는 일이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두 집의 차이는 시련이 오느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에 있다.
- 비(시련), 창수(세상), 바람(사탄), 죽음, 최후 심판이 모든 사람의 기초를 시험한다.
- 거짓 신앙은 잠시 만족을 주지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무너진다.
- 시련을 이긴 성도들의 공통점은 산상설교를 실제로 살았다는 것이다.
- 그러므로 기계적 신앙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산상설교로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